

[종합]

노대통령 지방 일정취소

해외순방 피로·몸살걸쳐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장기간 해외순방으로 쌓인 피로에 몸살까지 겹쳐 지방순시 일정을 취소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열리는 신활력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뒤 정선의 생약초시장과 농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를 출발하기 직전인 오전 7시30분께 행사 불참을 결정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누적된 피로에 몸살까지 겹쳐 행사에 못 가시게 됐다”며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피로감을 얘기하셨고 참모들이 지방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 결정을 내리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로 등청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예정된 행사에 불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격장 한달내 해결 안되면

항공전력 한반도 떠나겠다”

주한 미 7공군사령관

주한 미 공군이 조종사 훈련을 위한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항공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게리 트렉슬러(중장) 주한 미 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1일 오전 경기 도청에서 열린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초청강연에서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핵심이랄 수 있는 항공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해야(전개해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 방송위원 조창현씨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이상희(77) 방송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남에 따라 공석중인 대통령 추천 몫 방송위원에 조창현(71·사진) 전 중앙인사위원장을 내정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조 전 위원장은 방송위원 9명의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는 새 방송위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 출신인 조 전 위원장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 행사부 조직개편지원위원, 경실련 공동대표,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장 등 학계와 시민단체·정무직을 두루 역임했다. /연합뉴스



화순부군수에 박환기씨

전임 최창원씨 대기발령

전남도는 22일 10·26 재보궐선거 신안군수에 입후보할 뜻을 밝힌 최창원 화순부군수를 전남도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고, 후임 화순 부군수에 박환기(52) 엑스포지원관을 임명했다.

전남도는 “최창원 화순 부군수가 신안군수 보궐선거 입지자로 나섬에 따라 안정적인 군정 업무 수행을 위해 부군수를 교체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 전공노 사무실 15곳 폐쇄

광주 동구 합법노조 전환 검토 선언으로 유보

완도·무안·강진·광양 25~26일로 집행 연기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광주시 북구가 22일 전공노 북구지부 사무실을 폐쇄한 것을 비롯,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광주·전남지역 전공노 시·군·구 지부 사무실 15곳이 강제 폐쇄됐다.

이날 전공노 사무실이 폐쇄된 광주·전남 지역 시·군·구 전공노 지부는 광주 서구·북구·광산구, 전남 목포·순천·나주·여수시와 해남·장흥·고흥·영암·곡성·신안·진도·구례군 지부 등 15곳이다.

광주·전남 폐쇄 대상 21개 전공노지부 중 장성군 지부는 이미 자진 폐쇄했으며, 완도·무안·강진군과 광양시지부는 계고장 수령 지연으로 인해 25~26일로 집합이 미뤄졌다. 또 광주 동구는 전공노측이 합법노조 전

환 검토를 선언함에 따라 사무실 폐쇄가 유보됐다.

광주·전남지역 시·군·구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일제히 전공노 지부 사무실 폐쇄를 위한 강제집행에 시도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으나 큰 불상사는 없었다.

이날 오후 1시께 전공노 광주본부가 있는 북구청에는 250여명의 경찰과 구청 직원 등이 노조 사무실과 북구청 본관·별관 입구를 봉쇄, 간헐적으로 진입을 시도한 전공노 측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북구청은 오후 4시께 지부 사무실 간판을 내린 뒤, 사무실 내에 있던 전공노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발로 현관 유리창을 깨 민주

노충 산하 광주지역 일반노조 간부 이모(여·29)씨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서구청은 서구의회의 의원 2~3명이 전공노 측에 가세해 행정대집행에 애를 먹었으나 별다른 사고없이 오후 6시께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마쳤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시·군들도 오후 3시를 기해 강제폐쇄에 들어갔으나 전공노의 별다른 저항이 없어 비교적 순조롭게 상황이 마무리됐다.

광주·전남 29개 광역·기초단체 중 광주시·광주 남구·전남도·함평군·화순군·담양군 등 6곳 노조는 합법노조인 공노총 또는 공직협 소속이며, 영광군·보성군 노조는 최근 합법노조로 전환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강제폐쇄 과정에서 극렬하게 저항한 전공노 박형기(48) 전남지역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임주형기자 jihim@kwangju.co.kr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22일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던 중 바리케이드를 쌓고 이를 저지하는 전공노 조합원들(사진 오른쪽)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법조계 갈등 속 정상명 검찰총장 광주방문

“남 배려하고 말 아끼는 신중함 가져야”

“모든 일 ‘역지사지’ 마음으로 남의 탓보다 자기 되돌아보길”

최근 터진 법조계 갈등 속에 22일 광주를 찾은 정상명 검찰총장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끼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법원장이 강경 발언으로 법원의 위상 및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정 총장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며 ‘배려’와 ‘신중’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상복의 베스트셀러 ‘배려’에 나온 일부 글귀를 인용, “배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 맺음”이라며 “남에 대한 배려는 곧 남에 대한 존경이며, 이는 다시 자신에 대한 배려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장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

하는 변협의 입장에 대해서도 “모든 일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남을 탓하는 것보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조 3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결국 자신(법원)에 대한 배려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또 ‘배려’는 단어 외에 ‘신중’을 강조했다. 정 총장은 최근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법조계 갈등에 대해 “이번 일은 ‘말’로 비롯된 것이 만큼 말을 아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총장은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에서도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항상 신중하고 절제된 몸가짐으로 신중한 처세를 해야한다”면서 “최근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실망하고 당혹스럽겠지만, 이를 계기로 겸허하게 뒤를 돌아보고 사정의 중추로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

해 달라”라고 직원들의 자성을 당부했다.

이처럼 법조계 갈등으로 잔뜩 심기가 불편한 정 총장이었지만, 이날 자신의 초임 근무지인 광주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

정 총장은 직원 인사말을 통해 “만 29년 만에 첫 부임지를 찾아 감회가 새롭다”면서 “광주와 전남지역민이 검찰의 첫발을 내딛는 초임검사를 보듬어 키워줬는데, 30년 세월을 뛰어넘어 또다시 환영해준데 대해 감사한다”며 광주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정 총장은 또 “목포 지청장 시절 월출산을 자주 찾았는데 가뭄 갈수록 영산(靈山)이라는 것을 느꼈다”면서 “직원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번 초도 순시에 월출산 산행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설

체감경기 7분기 만에 최악, 앞이 캄캄하다

가계의 체감경기가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갈수록 얼어붙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4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관단 CSI는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앞으로 생활 현상이 더 나빠지고, 취업이 어려워지며, 물가와 금리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등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전 부문에 걸쳐 전분기보다 크게 떨어졌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지수가 소득계층별 분포와 상관없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점이다. 이는 향후 경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폭넓게 확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소비심리에 따른 경기둔화가 우려된다. 기업투자 위축으로 성장동력이 떨어

지고 있는 마당에 가계 소비마저 이런 식으로 위축되면 향후 경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굳이 지수가 아니라라도 지금 한창 달아올라야 할 ‘추석 경기’가 오히려 공공 얼어붙은 현실만 보더라도 경기 위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해도 정부의 경기전망은 이달에 안 좋으면 다음달에 좋아진다고 하고, 1분기에 안 좋으면 2분기에, 상반기에 안 좋으면 하반기에 나아진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의 이런 안이한 태도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경기를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을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학원 ‘천국’...공교육 정상화 서둘러라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임시 및 보습학원이 66%나 증가했다고 한다. 임시학원은 2만7천724개로 전국 초·중·고 수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가히 ‘학원천국’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광주의 사설학원은 1천481개로 초·중·고 274개의 5.4배 수준이며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인구 260만 명인 인천은 1천41개, 인구 144만명의 대전은 820개로 광주보다 적었다. 광주의 사설학원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난립해 있는 것이다.

사설학원의 급증은 공교육 정상화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통해 EBS 수능강의와 영어캠프 확대,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 개설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학원천국’을 언제까지 방지할 것인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할 만큼 효과는 없었다.

사교육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올 1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20만6천원 가운데 학원비를 포함한 교육비의 비중이 31만원으로 14%를 차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여기에 유학·연수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학부모들의 허리는 휠 수밖에 없다. 최근 상당수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안에서 ‘보교사형 논술’을 채택한 사실도 사교육비 부담과 사설학원 난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교육을 강제로 금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안은 공교육 정상화밖에 없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사설학원보다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학원천국’을 언제까지 방지할 것인가.



해남 화원관광단지 내 민자사업 기공식. 해남 화원관광단지 내 민자사업 기공식이 22일 김중민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기관장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고객만족도 조작 성과급 타내

코트라, 감사원에 적발

정부투자기관인 코트라(KOTRA)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왜곡했다가 사장과 전 직원들이 성과급을 회수당하는 조처를 당했다.

2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병안 기획처장관)는 전남 회의를 열어 코트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코트라의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월 기본급의 409%에서 389%로 20%포인트 낮추고 사장의 성과급은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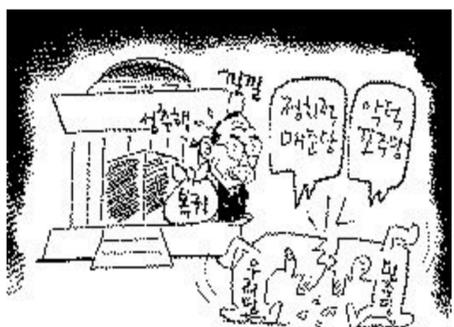
이에 따라 직원들은 100만원 가량, 사장은 1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각각 못 받게 된다. 운영위는 또 삼익이사, 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도록 기관장에게 권고했으며 고객만족도 업무담당자의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코트라는 작년 11월에 고객만족조사 모집단 1만6천명 가운데 자사에 불리한 4천명을 제외하고 고객만족도조사 1위를 차지했다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들쭉났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평가를 왜곡해 적발되고 처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내가 '심판' 봐주랴?!

J프로젝트 국내외 투자유치 청신호

서울 설명회에서 프라임건설 주간사 참여 밝혀

국내 유수의 건설사인 프라임건설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에 대표 기업으로 참여할 뜻을 밝힘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와 J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운영 주간사인 (주)삼안은 22일 서울 KOTRA 아카데미 회의실에서 전국 건설사 및 금융권 관계자, 개발사업 시행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프라임건설 강성한 사장이 “J프로젝트를 주도할 주간사(대표기업)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사업 전망이 밝게 나온 만큼 투자를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삼안의 이주진 상무는 “가장 보수적 관점에서 분석한 IRR(내부수익율)이 7.5% 정도로 사업의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이어 “이번 설명회에서 보고된 자료는 어디까지나 중간용역 결과서를 요약한 수준으로 향후 부지확보 관련 정부지원, 최신 공법의 활용 등에 따라 올해 말 완성 예정인 최종 보고서에는 IRR 등 사업성 분석결과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조만간 투자금이 확보되면 내년 초까지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사업계획 승인을 관제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 F A X 227-0118 >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편집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 F A X 02-773-9335 >
< F A X 222-4267 >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